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당사자인 김씨는 또 “성접촉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콘돔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성관계를 갖기 전에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한 세미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세미나 중 참가자들이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내가 만일 HIV에 감염되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즉 가상의 HIV감염경로와 검사결과 감염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해 상상해 보면서 진정으로 HIV감염자의 심정 및 그 외로움과 아픔을 마음

이번의 구속된 김모씨 (24·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아버지 (54)는 “아들이 보균자 관리 대책에 불만이 많아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으나 김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김씨는 “정액을 통해 에이즈균을 상대방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과 관계전에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는 “처음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는 ‘왜 하필 내가 이런 불치의 병에 걸렸나’하는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사회에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는 보복차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가 만일 HIV에 감염된다면...

어느 에이즈환자의 고백처럼 ‘친구도 없이 떠돌다 공원벤치 위에서 자고 가끔 눈이 맞는 애인 만나 따라가는 생활은 이제는 지쳤다며 차라리 나를 수용소에 밀어 달라’는 항변앞에서 우리는 에이즈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해야 함을 느끼게 된다.

즉, AIDS는 인간의 질병이며 감염자를 단순한 선입견으로 죄악시하기 보다는 인류가 공동으로 이끌어 들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주최한 AIDS예방을

으로 재현하게 되었다는 부분이였다.

사실상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감정은 사랑과 미움이며, 미움이란 결국은 자살과 타살로 이어지며, 보복이란 타살의 한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묘약이란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이며, 사랑이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며 포용해 주려는 마음의 전달일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수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생길수도 있으나 중앙적십자 혈액원에서는 모든 혈액에 대해 정확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양성판정을 받으면 혈액은 소각 폐기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느껴야 할 것은 감염자의 감정을 이해하며 아울러 피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보복의 심정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과, AIDS예방에 누구나가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A)**